

# 이이지이!EEJ

REQUESTED BY: 김지호

DATE 2024. 03. 29

## 배경설명

### 기획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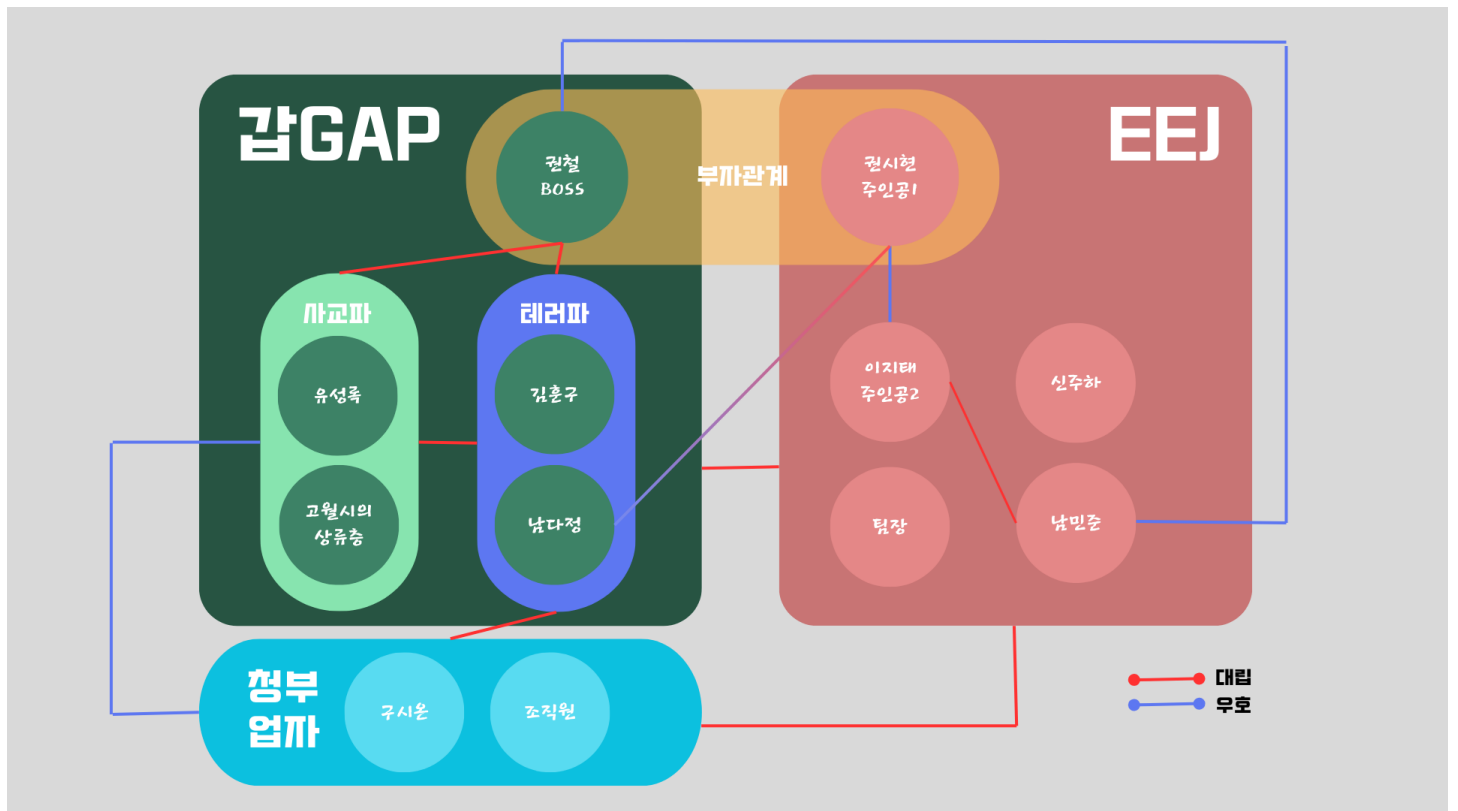
경기도 고월시에서 시작한 반사회적 테러 조직 고월연합당(Gowol Association Party), 속칭 '갭GAP'은 새로운 보스의 자리를 두고 벌어진 다툼으로 파벌이 둘로 나뉘어진다.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경찰은 갭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EEJ를 만든다. EEJ의 핵심 일원으로 경찰 출신의 엘리트 이지태와, 갭의 이전 대표인 권철의 아들이자 군인 출신의 용병인 권시현을 모은다. 이지태는 경찰로서의 명예를, 권시현은 의절한 아버지와 만나 자신의 사상을 확인하기 위해 작전에 참여한다. 물과 기름 같은 둘은 처음부터 휘청이지만, 같은 목표를 위해 손을 잡는다.

### 세계관

- 고월시 : 경기도의 가상 도시. 서울의 인구 분산을 위해 만들어진 위성도시 중 하나이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서 등 발전을 거듭하며 베드타운을 넘어 자체적인 생활권을 이루게 되었다. 빠르게 성장하는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수상쩍은 점도 있다. 폭력 사건이나 실종자의 수가 인구 수에 비해 유달리 많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고월시의 비밀 조직 '갭'이 연루되어 있다는 건 암묵적인 사실이나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은 없다.
- 고월연합당(Gowol Association Party) : 고월시의 비밀 조직. 아는 사람들은 '갭GAP'이라는 약칭이나 연합당으로 자주 불린다. 경제 침체로 사회로 불만을 품은 이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다. 처음에는 파티 Party라는 말에 충실하게,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모임이었다. 규모가 커지면서 폭력으로 사회에 반항하는 테러조직의 성격을 띠게 됐다. 이른바 고월시의 KKK. 대규모 테러도 서슴지 않으며, 그때마다 일원이 잡혔으나 기본적으로 점조직이었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았다. 한편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러니하게 고월시의 상류층 중에도 이들의 사상에 감화된 자가 나온다. 갭 내부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사교 조직 세력이 생겨난다.

- **갑의 현황** : 갑의 조직원은 공사조직을 불문하고 다양하게 포진해있다. 활동을 할 때는 갑의 회원임을 알 수 있는 모자를 쓰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형체가 없는 조직이다. 그러던 중 2023년, 갑의 창설자인 권철이 사라지면서 내부에서 새로운 보스를 뽑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갑의 폭력 조직을 대표하는 테러파의 김훈구와 사교 조직을 대표하는 사교파의 유성록이 대립하게 된다. 지금껏 갑은 핵심 인원들과 일부 친분이 있는 사이 외에는 같은 조직원이라도 서로 만날 일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A와 B가 각자의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는 내분 상황이, 조직원 파악을 더 용이하게 해줬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고월시의 경찰은 갑을 소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EEJ'를 만들었다.
- **태스크포스 EEJ** : 갑을 소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월시 경찰에서 만든 임시 수사팀. 권철의 아들이 고월시로 돌아왔다는 정보를 얻은 경찰 이지태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이지태는 고월시 출신인 것만으로 갑에게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는 경찰 간부에게 미운털이 박혔으며, 이번 기회에 갑을 소탕해서 출세의 장애물을 없애려고 한다. 이름은 갑의 보스의 아들을 주축으로 팀을 꾸린 점에서 착안하여 오랑케를 오랑케로 잡는다는 사자성어 이이제이에서 가져왔다.

## 갈등관계



# 시나리오

- 챗터1의 S#1-7까지의 시나리오

## 챗터 시놉시스

고월시로 돌아온 권시현. 권시현의 지인인 남다정을 감시하던 이지태는 이 소식을 알게 된다. 그리고 고월시의 범죄 조직 갑을 소탕하기 위한 팀 EEJ를 만든다. 갑은 보스의 부재를 틈타, 유명 인사로 이루어진 사교파와 폭력 조직인 테러파로 둘로 나뉜 상태이다. 이지태는 사교파로 알려진 인물과 접촉하는 동시에, 고월시 계획 범죄의 대부분은 테러파에서 나온다는 점에 착안해 범죄자를 심문해 테러파와의 접촉을 시도한다. 이지태는 사교파 쪽을 알아보는 게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남다정의 도움으로 테러파와 먼저 접촉하게 된다.

## S#1-1 전장 / 튜토리얼

테러 집단이 점령한 마을. 중국계로 추정되는 병사 4명이 방에서 마작을 치고 있다.

한 병사가 자신의 패를 바라보며 침을 삼킨다. 구련보등 화료를 앞두고 리치를 건 상태.

건너편 상대가 기다리던 패를 내자 만면에 미소가 번진다.

그때, 병사의 관자놀이를 따라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올라온다.

병사A: 론!

탕!

총성과 함께 창문의 커튼 틈새로 날라온 총알이 병사의 머리를 관통한다. 동요하는 병사들.

총성이 난 곳을 향해 몰려드는 테러 집단의 병사들. 표정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저격수가 있었던 건물의 문을 열어서 총을 난사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림자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가장 겁에 질린 병사의 뒤를 노린다.

매끄러운 솜씨로 나이프를 다뤄 자신의 죽음을 알기도 전에 목숨을 거두는 괴한.

이 특수부대 출신의 괴한의 이름은 권시현으로, 용병들 사이에서는 손 건이라고 불린다.

병사들: 무슨.../누구냐!

각자의 언어로 외치는 병사들. 그 혼란스러운 아우성 사이에서 권시현은 임전 태세를 취한다.

지형지물과 다양한 무기로 병사들을 처리하는 권시현.

움직이지 않는 적들을 둘러보고는, 확인 사살까지 마무리한다. 이후 무전을 취하는 시현.

권시현:여기는 손. 전원 처리했다.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역시 대단하군. 고생많았다. 이제 복귀하도록. 재정비한 뒤 잔당들을 쓸어버리자고.

권시현:아니, 그러면 늦잖아. 틈 들였다간 놈들이 도망칠걸.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그게 무슨 소리지?

권시현:(처리한 병사의 무기를 주워 들며)평화가 필요하다는 뜻이지.

무전기에서 뭐라고 소리가 들렸지만, 권시현은 송신을 끊어버린다.

주운 무기를 쳐다보더니 다시 땅에 던져버린다.

권시현:더 강한 평화가 필요해.

거점을 옮기려는 병사를 습격하는 권시현.

다른 병사가 과성을 지르며 화염방사기를 가져온다.

정확한 타이밍에 나이프를 던지는 권시현.

화염방사기를 써보기도 전에 권시현이 던진 나이프가 이마에 적중한다.

적이 남긴 화염방사기를 들어올리더니, 미소짓는 권시현.

화염방사기를 들고 움직이며 적의 거점을 하나씩 처리한다.

권시현의 눈동자에 이글거리는 도시의 잔상이 비친다. 지긋이 눈을 감는 권시현.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뭐 하는 거야. 거점인지 제대로 확인은 한 거야?

권시현:후환을 없애야 했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다.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몰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잖아. 저들은 네 성질을 풀기 위한 수단이 아니야.

권시현:.....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넌 미치광이야!

권시현:(나는 분명 평화를 지켰다. 뭐가 문제인 거지...?)

???: 의심하지 마

무전기 너머에서 이전까지와는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권시현을 훈련한 아버지 권철의 목소리다.

권철: 내가 말했잖나.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행동에 의미 같은 건 없다고... 하지만 지금 네가 하는 짓은...

말이 끝나기 전에 권시현은 눈을 뜬다. 그는 비행기 안에 있다.

창밖으로 미니어처 같은 고월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다.

## S#1-2 고월시의 식당/시네마틱 영상

고월시의 호화로운 식당에 경찰 이지태가 들어선다.

방금 계산을 하고 나간 젊은 남녀의 테이블에 핸드백이 있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전해준다.

이지태: 실례합니다. 가방을 두고 가셨더군요.

손님A: 앗, 감사합니다

호감가는 미소로 답례 인사를 하고 다시 가게로 들어가는 이지태. 가게 직원이 웃으며 그를 반긴다.

직원A: 감사합니다, 손님.

이지태: 뭘요, 당연한 일이죠.

식당 안쪽으로 경기도 경찰청장이 앉아 있다. 그를 향해 90도로 인사를 하는 이지태.

청장: 됐어, 됐어. 그나저나 자네는 여전히 점수 딸 기회는 놓치지 않을구만.

이지태: 하하, 어떻게 좀 괜찮았나요?

청장: 웃기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지. ...그게 사실인가?

이지태: 네, 권시현이 고월시로 돌아왔습니다.

권시현과 어떤 남자가 만나고 있는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는 이지태의 장면이 지나간다.

그 위로 들리는 이지태의 목소리.

이지태: 이전부터 권시현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고월연합당의 조직원인 남다정을 감시한 결과, 3일 전에 그가 권시현과 만난 걸 확인했습니다.

청장에게 핸드폰을 건내는 이지태. 화면에는 권시현의 모습이 찍혀 있다.

청장: (사진을 바라보며) 고월연합당이라... 여전히 마음에 안드는 이름이야. 그 같잖은 이름 때문에 여기 시장님 입지가 얼마나 좁아졌는지 알아?

이지태: 갑이라는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청장: 그건 마음에 들겠어? ...대체 어떻게 줄여야 그렇게 되는 거야?

이지태: 고월 어소시에이션 파티. 지 에이 피.

청장: 아, 마음에 안 들어.

청장: (핸드폰을 돌려주며) 하아, 하여간 유치한 놈들이야. 그 유치한 양아치들이 고월시를 번기로 만든지도 어언 수 십 년 짜지. 근데 그 번기에 얹은 놈이 사라졌어.

이지태: 권철 말이군요.

청장: 그래, 시현이 아빠. 놈이 사라지고 연합당은 주먹 쓰는 양아치 테러파와 돈 많은 양아치 사교파로 나뉘었지. 점조직이었던 놈들이 편가르고 싸오는 덕에 오히려 파악하기가 쉬어졌고 말이야.

이지태: 그래서 제가 권시현이 전역했다는 소문을 파악하고, 그를 이용해 놈들을 제압할 작전을 제안했죠. 솔직히 고월시로 돌아올지 안 올지는 도박이었지만 말이죠.

청장: ...나는 고월시의 문제를 알고도 놈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 몰라 속만 썩이고 있었지. 네가 새로 들어온 소위 엘리트라는 말에도 고월시 출신이란 것만으로 괜히 무시했고 말이야. 하지만 너는 오히려 놈들을 잡아들이겠다고 호언장담했어. 그게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했군. ...고생 많았다.

이지태: ...네, EEJ 프로젝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식당직원: 손님들, 죄송하지만...

이지태: 네?

식당직원: 술을 주문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대에는 다른 손님들도 많아서요.

청장: 그것도 그렇군. 일단은 먹으려고 온거니까.

이지태: 아, 그렇네요. 드시고 싶으신 음식이 있으실까요? 이 식당은 스테이크와 양파스프가 특히 맛있습니니다.

## S#1-3 식당 앞 거리

몰려다니는 고월시 테러파 처리, 권시현의 무기술과 달리 유도 복싱 등 격투기 기반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는 이지태와 청장.

이지태: 그럼 말씀드린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장:그래, 잘 부탁하네. 음, 저 녀석들은...

건너편 도로에서 8명 정도의 인원이 무리지어서 서성이고 있다.

그중에는 검은 복면을 쓴 사람도 몇 명 보인다.

이지태:저 복면을 보아하니 연합당 녀석들이네요. 저 복면 이제는 안하는줄 알았는데.

청장:그래 테러파 녀석인 것 같군. 사교파 놈들은 적어도 저렇게 돌아다니지는 않으니까 말이야. 쓰읍. 저렇게 무리지어 서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자기 거리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

이지태:...청장님 잠시 차에서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이지태는 청장의 자동차 뒷문을 열고 웃고 있다.

청장:(차에 타며) 뭘 하려는 건가?

이지태:청장님이 친히 고월시까지 오셨는데 좋은 인상을 남겨야죠.

차문을 닫고 연합당이 있는 방향으로 다가가는 이지태.

가까이 다가가자 연합당 측도 이지태의 존재를 눈치챈다.

테러파말단A: 뭐야, 넌?

이지태:어이, 너희들. 그 복면을 보아하니 연합당 녀석들이다.

서로 둘러보는 연합당. 일제히 웃기 시작한다.

테러파말단A:네? 연합당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테러파말단B:저희가 무슨 정치하게 생겼나요?

이지태:모르는 척 하기는. (경찰증을 꺼내보이며) 경찰이다. 문제 일으키지 말고 암전히 들어가. 내 손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이지태가 경찰이라는 걸 밝히자 술렁이는 연합당.

테러파말단A:경찰이라고..?

테러파말단B:거기에도 우리 친구 있지 않나?

테러파말단C:우리 친구야 없는 곳이 없지. 이 아저씨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지태:(정색하며) 내가 너희들 같은 고월시의 쓰레기들하고 어울릴 거 같아? 친구 어찌구 하는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아작을 내주겠다.

이지태의 말에 히죽대던 연합당이 정색하고 그를 노려본다.

테러파말단A:이 자식이 우릴 어떻게 한다고? (눈짓으로 다른 동료한테 신호를 보낸다)

이지태를 애워싸는 테러파. 곧 그를 뒤에서 붙잡고 복부를 주먹으로 때린다.

테러파말단A: 다시 한 번 말해봐.

수차례 얻어맞자 바닥에 주저 앉는 이지태.

웃으며 물러나는 연합당. 기회를 엿본 이지태는 순식간에 일어나서 후미의 연합당 조직원한테 엮어치기를 가한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꽃히는 조직원.

이지태: 이제부터 정당방위다.

주변의 무기를 활용해서 전투를 하던 권시현과 달리 유도나 복싱 등 다양한 격투기로 타격과 그래플링을 구사하는 이지태.

능숙한 전투 솜씨로 조직원을 하나씩 제압해간다.

당황한 조직원 하나가 나이프를 꺼내들어 휘두른다.

공격을 피한 뒤 타이밍에 맞게 조직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구속하는 이지태.

전원을 제압하는데 성공하고, 핸드폰을 들어 동료 경찰에게 연락한다.

이지태: 나다. 여기 OO식당 앞인데, 시비 거는 녀석들이 있길래 잠깐 모셔놨다...그래, 아직도 덤비는 녀석이 있더군. 아무튼 이 녀석들 연행 부탁한다.

통화를 마치고 청장의 차량으로 다가오는 이지태.

이지태: 이런,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녀석들이 말을 안 들어서요. 하여간 양아치놈들...

청장: 자네가 그러고도 경찰인가?

이지태: 네? 무슨 말씀이신지...

청장: 됐어. 상대가 상대니까 이번엔 넘어가지. 미친 놈을 상대하는 데는 미친 놈이 제격일지도 모르겠군.

이지태: (90도로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그늘진 이지태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 S#1-4 권시현의 집 앞

이지태가 청장을 만나기 며칠 전.

고월시의 집에 도착한 권시현.



오랫동안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없어 방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다.

권시현: (역시 아버지는 안 계시군.)

책상 위의 빛이 번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가족 사진과 벽에 걸린 도끼, 줄줄이 쌓여있는 먼지 쌓인 화염병 등을 둘러본다.

소파에 드러누워서 생각에 잠기는 권시현.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

권시현: (누구지?)

???: 형! 안에 있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문으로 다가가는 권시현.

문을 여니, 아버지와 의절하기 전 어린 시절에 알고 지냈던 남다정이 있었다.

권시현은 인상을 찌푸린다.

남다정: 오오...! 시현이 형. 진짜로 있었구나! 57번째만이네!

권시현: 너였나. 무슨 말이지. 그 57번째라는 건.

남다정: (방에 들어가며) 형 전역했다는 소식 듣자마자 매일마다 여기 들어서 왔는지 확인해봤거든! 오늘이 57일째란 뜻이었지. 형이 무슨 용병됐다는 소문듣고 완전 팬이 됐거든. 미치광이 용병, 손 건이 형이잖아!

권시현: ...일은 안 하나?

남다정: (소파에 드러누우며) 나 아직 학생. 만날 사람도 없고. (캔음료를 따서 마시며) 야, 벽에 저 도끼. 오랜만에 보네. 이 방의 무기들도 여전하구나!

권시현: 전부 평화의 상징이지. 너도 평화를 원하면 내 소파에서 뭐 먹지 마.

남다정: 마시는 거거든. 형이 말하는 평화란 게 이렇게 아박한 거였어?

권시현: 평화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지.

남다정: (소파에서 일어나며) 평화 얘기 하니까 옛날 생각나네. 형, 오랜만에 사냥하자.

권시현: 사냥?

남다정: 그래, 형 떠나고도 나는 계속 연합당을 지키고 있었거든. 근데 사실 요즘 분위기가 뒤숭숭해. 지들끼리 싸운다고 소문이 싹 퍼진거야. 그러다보니 우리를 따라하고 맛먹으려는 길거리 양아치들이 늘었어. 이 녀석들 싹을 뽑아버리자.... 하아, 이게 다 사교파 놈들 때문이야.

권시현: 고월시에 경찰은 없는 건가?

남다정: (의아해하며) 그야 있지? 그래서 이 짓이 더 재밌는 거고! ...그나저나 형 아까부터 빼기만 하는 거 같은데, 감을 잃은 건 아니겠지?

권시현: (웃으면서) 좋아. 그렇게 말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 슬슬 패주고 싶었거든.

남다정: 농담도. 좋아, 서로 실력 확인 좀 해볼까. 나도 놀고만 있지는 않았거든. 저기 걸려있는 평화의 상징도 써도 좋아.

남다정은 나이프를 활용한 무기술과 기계체조를 통해 익힌 민첩한 움직임으로 응전한다.

마치 권시현과 이지태를 적절히 섞은 듯한 전투 스타일이다.

권시현에게 몇 차례 공격을 시도하지만 큰 데미지를 못 준 반면, 권시현의 주먹은 남다정의 몸통에 적중한다.

거리를 두고 나이프를 던져 견제하는 남다정.

권시현은 주변의 모든 물건을 무기로 다루는 능력을 활용해, 타이밍에 맞춰 접시 등을 던진다.

나이프를 모두 떨어뜨린 뒤, 벽에 걸린 도끼를 빼들어 남다정을 향해 내던진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꽂히는 도끼. 도끼를 뺀히 쳐다보던 남다정은 웃음을 터뜨린다.

남다정: 우왓, 하하하. 역시 형이야. 자기 집이어도 봐주질 않는구나!

권시현: 평화에는 책임이...

남다정: 아아, 알았어. 이제야 즐거워 보이는군.

권시현: 내가 즐거워 보인다고?

남다정: 그렇다니깐! 서로 확인도 했으니 슬슬 사냥하러 나가자. 옛날에 어릴 때 형 아버지도 한 훈련이잖아?

권시현: 아버지 얘기 하지마. ...그보다 아버지 소식 들은 거 없나.

남다정: 없어. 요즘 그 분 뭐하시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걸.

권시현: 좋아, 결심했다. 그래도 얼굴은 봐야지. 네가 말한 양아치들은 물론, 연합당 놈들도 싹 쓸어버려서 여기 평화를 지키면 아버지도 모습을 드러내겠지.

남다정: 아하하하, 그건 좀 웃겼다.

남다정이 동료가 되었다.

## S#1-5 고월씨 마을 거리

집에서 나오는 권시현과 남다정.

권시현은 동네 거리를 거닐면서 남다정에게 고월연합당의 현황을 전해 듣는다.

권시현:아까 말한 사교파란 게 그 고상한 놈들인건가.

남다정:그렇다니까. 갑의 본질은 원래 바로 행동하는 폭력에 있어. 행동으로 저항하며, 추락한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악으로부터 지역을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그런데 뒤에서 계산기나 두드리는 놈들이 자꾸 맛먹으려 든다니까. 돈맛을 알고 변절한 놈들도 많아. 전부 쓸어버려야 해. 사업이라면 우리 테러파도 하는 데 말이지.

둘의 시야에 담배를 피며 떠드는 학생들이 들어온다.

남다정:(싱글벙글하며) 저런 사회의 쓰레기들도 처단해야겠지.

가볍게 승리하는 권시현과 남다정.

이후로도 학교 일진부터 신흥 폭력 조직의 일원까지 다양하게 처리한다.

동시에 권시현은 오랜만에 돌아온 고월시의 마을을 구경한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로를 달래고, 양아치 처단을 계속 하는 둘.

권시현은 점차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에 적응해간다.

옛날 생각이 나는지 서서히 즐거워지는 권시현.

며칠 후, 현재. 다시 사냥을 나온 권시현과 남다정.

그러던 중 유튜브 촬영을 하는 일당이 남다정의 시야에 들어온다.

남다정:형, 보여? 저 촬영하는 녀석들 말이야.

권시현:아아.

남다정:고월시의 팝업스토어나 행사 관련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인데, 알고 보니 사교파의 꼬나풀이더라고. 그 장사꾼들이 사업하는 거 홍보하려고 만든 채널인 거지.

유튜버A:...지금까지 고월시의 가장 핫한 맛집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남다정:저게 맞냐고. 가서 놈들이 잊어버린 행동하는 폭력의 가치를 일깨워주자.

권시현:네가 멋대로 결정하는 건 마음에 안 들지만. 사교파란 놈들이 뭐하는 놈인지 알아볼까.

유튜버와 촬영팀을 처리하는 권시현과 남다정.

카메라를 든 촬영감독과 마이크를 든 음향감독은 사교파의 조직원이었다.

사교파 조직원들이 시간을 버는 사이 사교파 간부에게 연락하는 유튜버A.

쓰러진 유튜버와 권시현 사이로 달려드는 커다란 승합차.

차에서 사교파의 조직원들과 간부가 내린다.

간부는 다른 적들보다 덩치가 크다.

사교파간부A: 연락이 와서 재촬영이라도 해야 하나 했더니 테러파의 떨거지들이었군. 주먹질 밖에 모르는 너희는 우리가 싸움을 못한다고 멋대로 착각한단 말이지.

양복 위로도 존재감이 전해지는 근육질의 몸.

사교파간부A: 태생부터 엘리트였던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엘리트다. 내 몸은 헤비급 복서의 주먹과 보디빌더의 다리, 뛰어난 사업가의 머리로 이루어졌지. 네까짓 놈들이 상대할 수 있겠냐!

간부와 의 전투에 돌입하는 권시현과 남다정.

남다정은 현란한 동작으로 간부의 부하들을 하나씩 처리한다.

강자를 알아본 간부는 곧장 권시현을 향해 다가간다.

능숙한 복싱으로 권시현을 몰아붙이는 간부.

권시현은 근처의 사물을 들어 충격을 흡수한 뒤 군용 무술을 통해 맞붙는다.

보다 전투에 익숙한 권시현의 쪽으로 전황이 기울고, 간부는 복부에 발차기를 정통으로 허용한다.

남다정 쪽 상황도 이미 정리가 되자,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간부는 물러나려 한다.

권시현은 틈을 내주지 않고, 승리에 도취해 싱글벙글하는 남다정을 어깨 위로 들어올린다.

남다정을 집어던지는 일종의 합동기로 간부를 제압하는 데에 성공한다.

## S#1-6 고월씨 인적 드문 곳

전투가 끝나고 몸을 터는 남다정.

남다정: 시현이 형이 집어던질 때는 살짝 열 받았지만, 결과가 만족스러우니까 넘어가지.

바닥에 주저앉은 간부를 내려다보며 말한다.

남다정: 어떻게 해야 본보기로 남을 까나.

사교파간부A: 우쭐대지 마라. 너희는 지금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테러파의 방법만 가지고서는 연합당이 끝나는 건 시간 문제야. 곧 우리가 연합당을 먹을 때가 오면 너희도 싫어도 알게...

간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나이프를 내던지는 남다정.

칼날이 간부의 손에 꽂힌다.

사교파간부A: 크아아앗!

남다정: 복서 아웃. 아까 헤비급 복서의 주먹이 어찌구 했었지?

다시 한번 날라가는 남다정의 나이프.

이번에는 허벅지에 찔린다. 비명을 지르는 간부.

남다정: 보디빌더 아웃. 어차피 로이더니까 언젠가 쓰지도 못하겠지. 자, 다음은 사업가인데...

나이프를 던질 듯 말 듯 한 상태에서 머뭇거린다.

남다정: 자, 머리를 노려야 하나 저 헛바닥을 노려야 하나 고민되는데...

그때 테이저건이 날라와 남다정의 다리에 꽂힌다.

남다정: 아그그극...

갑작스러운 전기 충격에 맥을 못 추고 기절하는 남다정.

테이저건을 쏜 것은 이지태였다.

이지태: 아주 미친놈들이 활개를 치는구나. 고월시 골목에는 예전부터 쓰레기들이 우글거렸지만 남다정 년 그중에서도 독보적이었어.

남다정이 기절한 것을 확인하고 간부에게 다가가는 이지태.

이지태: 당신 같은 분이 강패들 때문에 이런 심한 꼴을 겪다니, 고월시 경찰로서 정말 면목이 없네요. 구급차가 왔으니 조금만 참으세요.

사교파간부A: 네? 앗, 네, 넵! 으아아악, 아파 죽겠네! 저놈들 꼭 체포해주세요!

이지태: 넵, 알겠습니다.

권시현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이지태.

이지태: ...그렇다는데요? 권시현씨.

권시현: 나를 알고 있나? 경찰.

이지태: (헛웃음을 터뜨리며) 안 지 좀 됐죠. 당신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좀 있어서 말입니다. 저기 기절한 분을 쫓아다니 다 보면 당신하고 이어질 줄 알았죠.

권시현: (남다정을 쳐다보고는) 멍청한 놈.

이지태: 게다가요 며칠 당신들이 난리를 쳐온 덕분에 더더욱 찾기 편했고요. 자, 그래서 어떡할까요? 당신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권시현:한 번 시험해보면 알 수 있잖아. (전투 태세를 취하는 권시현)

이지태:하아, 역시 이렇게 되나요. 하긴 저도 당신의 전투 능력은 글로만 접했으니... 나중에 일할 걸 생각하면 이쪽이 빠르겠네요.

전투에 임하는 권시현과 이지태.

이지태는 권시현의 역량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격을 흘리는 유술 위주의 격투기를 사용한다.

몇 번을 합을 나누고 이를 눈치챈 권시현. 거기에 더불어 이지태가 상당한 실력자임을 깨닫는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이 보고 싶은 권시현은 이지태를 더욱 몰아붙인다.

이지태는 타이밍 맞게 플라잉 암바를 시도한다.

하지만 권시현은 괴력으로 관절기를 시도하는 이지태를 그대로 들어 올린다. 당황하는 이지태.

권시현은 그대로 이지태를 벽으로 향해 내던진다.

통증을 느낀 이지태는 더이상 방어적인 자세로는 권시현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직감한다.

이지태가 자세를 고쳐 잡는 것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권시현.

???: 거기까지다! 째새!

권시현, 이지태:???

테러파말단A: 드디어 찾았다. 이 공갈협박 경찰... 아주 여기저기서 같은 수작을 부리고 다녔던데 요즘.

이지태: 무슨 오해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시현씨가 일으킨 난리에 이끌린 게 저만 있는 게 아닌 거 같네요.

테러파말단B: 너한테 온 건데.

이지태: (무시) 자, 갑작스럽지만 권시현씨. 첫 번째 미션입니다.

권시현: 같이 팀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만.

이지태가 동료가 되었다.

권시현과 이지태는 팀을 이뤄 적들을 제압한다.

다시 한 번 나이프를 휘두르는 테러파의 조직원.

한 번 해본 경험이 있던 이지태는 능숙하게 수갑을 채우고, 이어서 권시현이 뒤에서 베어허그를 가한 뒤 그대로 수플렉스로 이어지는 합동기를 쓴다.

겁에 질려 달아나는 테러파의 조직원들.

테러파말단A:야, 야! 빨리 애들 챙겨!

테러파말단B: (기절한 남다정을 발견하고는) 이 사람도 우리 편이었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테러파말단A: 몰라! 일단 데려와!

순식간에 사라진 조직원들과 남다정.

권시현: 그냥 보내줘도 되는 건가?

이지태: 뭐, 괜찮아요. 저 친구들도 억울한 게 있는 것도 사실이고 남다정은... 언젠가 잡기야 하겠지만 당장은 저런 사람이라도 쓸 데가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선택을 듣는 게 중요하고요. 도중에 끊겼기는 하지만... 실력 확인은 충분히 한 것 같은데요.

권시현:.....

이지태: 이대로 있으면 경찰들이 눈에 불을 키고 당신을 찾아다닐 거예요. 오랜만에 온 고향에서 쫓기는 건 너무 서글프지 않나요. 지금까지 당신의 행적을 보니 고월연합당이 탐탁지 않다는 건 저하고 마찬가지로 인 것 같은데요.

권시현: 말이 너무 많군.

이지태: ...그러면...?

권시현: 좋아, 우선 무슨 작전인지 들어보도록 하지.

이지태: (웃으며) 감사합니다.

동맹을 축하하듯 힘껏 악수를 하는 두 사람.

이지태: (아까 싸울 때의 권시현의 모습... 영락없는 싸움 중독이다. 용병 시절에도 과도한 폭력성으로 악명이 높았었지. 고향으로 내려온 지금쯤 자기가 쓸 수 없는 무기였단 걸 깨닫고, 분명 공허할 테지. 나하고 손을 잡은 것도 아마 그 때문이겠고. 아버지의 조직이든 무엇이든 상관 없는 건가... 역시 이 인간은 내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쓰고 적당히 버리는 게 맞겠어. 그게 맞아.)

권시현: (역시 고월시와 연합당 모두... 더 강한 평화가 필요해.)

## S#1-7 EEJ 사무실

이지태: 그럼 여기 계속 서있는 것도 뭣하니, 우선 저희 사무실로 이동하죠.

권시현: 그러지.

차에 탑승하는 권시현과 이지태.

이지태: 타자마자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먼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권시현: 뭐지.

이지태: 우선 저희 팀의 목적은 짐작하셨겠지만 고월시 만악의 근원, 고월연합당을 송두리째 뽑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권시현: ...일단은 그렇지.

이지태: 좋아요. 동의하는 걸로 알아듣죠. 그러지 않으면 이야기를 시작도 할 수 없거든요.

시동을 걸고 차를 운전하는 이지태.

이지태: 이동하면서 가볍게 들으세요. 저희 팀의 정식명칭은 태스크포스 EEJ입니다. EEJ가 뭐의 약자였는데, 기억은 잘 안나고 어감 그대로 사자성어에서 가져온 거죠. 보스의 아들인 당신을 통해서 갑을 해치운다. 이게 저희 팀의 핵심이거든요.

고월시: 이 지역에 이름 잘 짓는 사람은 없나 보군.

이지태: (무시) 얘기를 계속하자면 갑이 반쪽이 난 건 이미 알고 계시죠? 남다정을 비롯한 폭력 집단 테러파와 부유한 사교 집단으로 구성된 사교파. 앞으로 저희는 한쪽에 잠입해서 해체하고, 갈등 상태인 다른 한쪽을 이어서 해체하는 것이 저희 작전의 큰 그림입니다.

권시현: 그럼 나는 어느 쪽에 들어가게 되지?

이지태: 사교파는 유명한 사람이 많지만 테러파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사교파와 먼저 친해지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하지만 테러파의 남다정이 당신을 예상 이상으로 잘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먼저 테러파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더 생각해봐야겠지만, 제가 사교파와 가까워지는 동안 당신은 테러파로 스며드는 양동작전인 셈이죠.

권시현: 아까 그 사교파 간부한테 살갑게 군 것도 그런 심산이었군.

이지태: 하하, 이야기가 빠른데요? 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외진 곳에 위치한 건물로 들어가는 권시현과 이지태.

이지태가 방문을 열자 의외로 실내가 넓은 사무실이 드러난다.

내부 직원들이 하나 둘 이지태를 반긴다.

이지태: 모두들 고생 많습니다. 자, 권시현씨. 앞으로 함께 일할 사람들입니다. 한 분씩 인사시켜 드릴게요.

권시현과 이지태는 먼저 팀장에게 다가간다.

이지태: 이분은 저희 EEJ팀의 팀장님이십니다.

팀장: 그래, 소문은 익히 들었다. 사람도 많이 죽였는지? 지금은 한 배를 탄 사이지만, 서로 공과 사는 확실히 하자고. 가봐.

이어서 반대편 책상의 남민준에게 다가간다.

이지태: 이분은... 저와 함께 수사를 담당하는 남민준씨.

남민준: 안녕하세요. 팀장님이 말은 저래도 사실은 아주 친절하신 분입니다. 같이 잘 해보죠.



이어서 옆 책상의 신주하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자리가 비어있다.

이지태: 어, 이쪽에 앉아있던 분은 저희 팀의 홍일점이자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신주하씨인데... 음, 저 문쪽으로 가보시겠어요.

문으로 다가가는 권시현. 문 밑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뒷편에서 여자가 걸어나온다.

신주하: 안녕하세요! 보다시피 잠입 전문인 신주하입니다! 이쪽으로는 지태씨보다 제가 더 잘할 걸요?

이지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네 명이, 아니 이제는 다섯 명이 한 팀입니다. 앞으로 잘해보죠.